

# 행정부지사, 현장에서 정책발굴 한다

### 새만금서 도 지질공원 육성지원위 개최... 무너도 수도시설 방문... 전군가도 '100리 벚꽃길' 점검

최근 전북의 행정은 의례적인 의전 절차나 형식적인 보고, 시나리오 등을 없애고 도민들과의 직접 대화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찾는 현장행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고창에서 진행된 '도민과 함께하는 희망대화', 2월 27일, 전주 남부시장에서 개최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민생 현장 간부회의' 등에서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0일 행정부지사는 전례의 해상 관광공원인 고군산군도 일원과 빛나무고사, 통행량 감소 등으로 활성화가 필요한 전군가도를 방문함으로써 북서부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을 디디었다.

이번 방문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생활밀착형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김일재 행정부지사의 의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마이산, 채석강 등 2개 권역을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중인 전북도는 고군산군도를 3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지질명소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새만금에서 전북도 지질공원 육성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10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윤여웅 제일건설 대표이사, 최병균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과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우수인재육성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용하기 위해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해 탐방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물 판매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질명소 발굴, 정밀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지질공원 추진·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부부터 단계적으로 국가지질공원을 인증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김 부지사는 광역상수도의 지

속적인 공급 확대를 기존 이용 중인 해수담수화 시설을 포함한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가 예상되는 바 향후 활용방안 구상을 위해 무너도 수도시설을 방문했다.

이러 자연 친화적 환경개선,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각광받았던 전군가도의 '100리 벚꽃길'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변자원을 탐색하고, 식재구간을 점검했다.

현재는 빛나무의 생육환경이 불량하고, 식재 단절구간 등이 많아 만경강

하천정비사업 등 주변지원 연계 및 빛나무가 군집한 구간 집중화 등 전군가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번 현장방문을 계기로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소규모수도시설의 향후 활용방안 및 전군가도 활성화 등에 면밀히 분석, 검토해 북서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전북 기능경기대회, 우수 기능인 136명 배출

전북 숙련기능인들의 축제인 제47회 전북 기능경기대회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 가운데 6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렸다.

이번 기능경기대회에는 39개 직종에 총 401명이 참가해 열린 경합 속에 기량을 겨룬 결과, 136명의 우수 기능인(금 39, 은 38, 동 35, 우수 24)을 배출했다.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메달과 상장, 상금이 수여됐으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직종의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과 산업기사 필기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오는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 선수로 참가해 전국에서 모인

기능인들과 다시 한번 기량을 겨루게 되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시상금과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한편, 이번 대회기간 중 헤어쇼, 케익시연, 피부관리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개최돼 참가자 및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어린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 개최된 'Young Skill 올림피아드'에서 전주한들초등학교 손주한 학생 등 10여명이 입상했으며, 미래의 꿈·직업설계 등을 주제로 개최된 백일장에서는 강화향 공고등학교 정혜찬 학생 등 4명이 상장과 상금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재용 기자

## 빅데이터로 본 '전북 음식' 관심 키워드

### 비빔밥·떡갈비·콩나물국밥·한정식 등... '아이들' 눈에 띄어

전북도가 웹소셜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를 매월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4월에는 '전북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를 분석했다.

이는 요즘 들어 '떡방', '떡방' 등 신조어의 등장과 함께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가고 있어, '맛의 고장 전북'은 어떤 키워드가 이슈로 등장했는지, 최근 3년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 '음식 편(4월)'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북을 대표하는 음식인 '비빔밥', '떡갈비', '콩나물국밥', '한정식' 등에 대한 검색이 많이 도출됐고, 주요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군산 지역이 높은 검색을 보이는 등 음식과 관광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아이들'

로, 이는 1인 외식 비중이 증가하는 요즘 전북은 아직 가족 중심의 외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메뉴 선택 시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수집출처에 따라 연도별 키워드 변화를 살펴보면, 블로그·트위터의 경우 특정음식(점)의 홍보 극대화를 위해 운영하는 맛집 블로그의 영향으로 '지역(전주·군산·고창·익산)', '주차장', '영업시간', '밀반찬' 키워드 등 다양하게 도출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빅데이터로 보는 전북 ISSUE가 소셜분석을 통해 전북도 주요 키워드의 이미지 변화와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북도 공무원이 쉽고 재미있게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중의 관심도를 행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도, 마을상품개선 지원 협약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은 지난 7일 '2017년 마을상품개선 맞춤형 지원사업'에 선정된 '향토산업마을'을 대상으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도내에는 현재 120개의 향토산업마을이 지정돼 있으며 이들 마을에서는 잉어 농산물을 제품화해 255개 품목이 개발돼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만족도가 매우 낮고 유통·마케팅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이러한 지역내 마을상품에 시장의 현장감을 불어넣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2017년도 마을상품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크게 상품의 고품질,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한 상품개선 분야와 소비자 선호도 및 구매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개선분야로 나뉘어 진행하게 된다. /인재용 기자

## 베트남 하노이 관광박람회에서 관광객 유치

### 전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현지 여행사와 상담회·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동남아 관광시장 개척을 위해 전북도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 관광박람회에 참석해 전라북도 관광홍보관 운영과 하노이 현지 여행사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박람회장에서 전라북도 홍보관은 눈꽃과 단풍 그리고 한복체험 등을 주제로 꾸며졌으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를 위한 관광상품을 주로 홍보했다.

베트남 하노이 관광박람회는 하노이시 관광국과 베트남여행협회에서 주최하고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하노이시인민위원회, 베트남관광협회에

서 후원하며 30개국 800여명이 참가해 올해에도 6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국제적 관광박람회다.

이번 하노이 관광박람회장에서 전북도는 B2B 상담회(하노이 현지여행사와 일대일 상담회)와 B2C(일반소비자 대상 홍보) 마케팅을 실시했다.

6일에는 하노이현지 여행사와 지인 마이산 벚꽃, 내장산단풍, 무주스키 등 계절관광상품과 함께 전주한옥마을 한복, 한식체험과 야간 시장 먹거리 투어, 태권도 체험 등을 엮어 계절별 숙박관광상품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입실치즈체험과 사물놀이, 남원의 국악체험 등 수확여행상품도 같이 알렸다. /인재용 기자

7일부터 9일까지는 일반소비자 대상으로 전북관광사진 찍기 등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라북도 관광브랜드 제고에 전력을 다했다.

전북도는 최근 중국시장 위축에 따른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베트남에서 해외 현지홍보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동남아 관광시장에 개척 및 강화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 1~2월에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관광객은 작년 동기보다 16%, 방한 베트남 관광객은 21%가 늘어 전북도도 베트남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 도, 사회적경제 제품 특별판매 장터 운영

### 매 주말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술박물관에서

전북도는 전주 한옥마을 내 전통술박물관에서 사회적경제 특별장터를 운영한다.

지난 주말에 개장한 특별장터는 제품으로 만나는 스토리가 있는 맛 위크숍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사해 도내를 찾는 관광객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청년 셰프와 함께하는 전통요리 체험, 우리선조들의 멋진 유상곡수연, 전주 모주만들기, 전통주 빚기 등 많

은 체험거리와 다듬이 할머니공연단과 임실중금미를 할머니공연단, 청년들이 함께하는 버스킹, 팍페라, 어린이 공연 등 많은 공연을 준비했다.

한편 매 주말에 열리는 다음 장터는 오는 15일에 다시 시작되고, 청년 예술가와 함께하는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5만원 이상 구매시 추첨을 통해 관광투어패스 카드를 주고 있는 등 더 풍성해진 상품들이 기다린다. /인재용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